

간도의 우리문화와 중국의 왜곡에 관한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Indigenous Culture of Gando and Countermeasure against
China's Distorting Action

신용우* · 오원규**

Shin, Yong-Woo · Oh, Won-Kyu

초 록

1909년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잃은 상황에서 맺어진 일본과 중국의 간도 협약에 의해 간도가 불법으로 중국 영토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다 할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이나 간도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간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중국은 동북공정을 비롯한 영토공정을 앞세워 간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미 의미가 없는 조약에 대해 왈가불가하는 것보다는 역사와 문화를 왜곡해서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려는 속셈이다. 그런 중국의 속셈을 아는 이상 우리는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간도에 산재한 문화가 과연 누구의 문화인가 하는 근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주권 역시 영토에 관한 주권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서, 영토의 진짜 주인은 그 영토에 존재하는 문화를 향유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간도에 있는 문화의 주인은, 고조선 이래 형성되어 현재까지 맥을 이어온 북방문화권의 주인인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밝힌다. 고대는 물론 근대의 봉금지역해제 이후 간도에 문화를 정착한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기 때문이다. 또한 간도 문화의 주인이 우리라는 것을 알기에 그 문화에 대해 왜곡을 일삼는 중국의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지나간 역사는 조작될 수 있지만 인간의 내면에 내재하면서 성숙하고, 밖으로 표출되어 형성된 문화는 왜곡할 수 없다. 아울러 중국이 자신들의 역사라고 하는 청나라 역사가 과연 중국의 역사인가를 재검토할 정책적 제안을 한다.

주요어: 영토, 간도, 문화, 고조선, 북방문화권, 영토공정, 청나라 역사, 문화주권

* 경일대학교대학원 박사과정(E-mail : dudwk3437@hanmail.net)

** 경일대학교대학원 박사과정(E-mail : wkoh3419@hanmail.net)

ABSTRACT

South Korea did not take action when South Korea was in a situation of lost the diplomatic rights in 1909, despite Gando is incorporated into Chinese territory illegally by the Gando Convention between Japan and China. But it is obvious that Gando is called South Korea's territory in various cultural aspects and historical facts scattered in Gando. But China employs every means possible to make it their own territory taking up the territory projects including the China's Northeast Asian Project distorting the facts that Gando is South Korea's territory.

This is the ulterior motive to make it their territory by distorting the history and culture rather than arguing right or wrong on the meaninglessly convention.

We need to take action about it because we know the ulterior motive of China.

To do this, it is really important to reveal the fact who is the original owner of culture scattered in Gando. As cultural sovereignty is also one of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territorial sovereignty, real owner of the land is a people who enjoy the culture inhabited in its territory.

This paper says that master of Gando culture is ours who are the owner of a northern culture leading from old Chosen dynasty. Because our nation settles the culture in Gando since the release of modern Bonggeum area as well as ancient.

In addition to knowing that we are the owner of Gando culture, the researcher proposes a methodology to respond to the China that often distorts the cultural truth. Past history can be manipulated, but culture which is embedded with human's interior mature and formed with exposures out cannot be distorted.

In addition, the researcher proposes the political agenda to review whether the Chung history is really a Chinese history or not.

Keywords: territory, Gando, culture, northern cultures, territorial project, the history of Chung dynasty, cultural sovereignty.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09년 중국과 일본이 맺은 간도협약은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배제된 협약이므로 원초적으로 무

효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문제 제기 한 번 해 보지 않았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간도 되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을 뿐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간도 영토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 보니 국제적으로는 간도가 중국 영토로 공식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간도가 중국 영토인가를 살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 무엇보다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간도에 관한 영토문제를 검토해 보면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간도 영토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알려진 것이 없어 국제사회에서는 현재 보이는 그대로 인정하는 실정이다. 더더욱 2004년 10월 22일 우리나라 국회에서, 간도문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이 있었지만, 당시 외교통상부 반기문 장관이 “간도협약 자체가 법리적으로는 무효이지만 간도협약문제와 간도 영유권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¹⁾이라는 모호한 답변을 함으로써 간도의 영토문제를 회피한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국제사회에서는 간도를 우리 영토화하는 것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간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알리고 간도를 수복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간도에 뿌리내리고 있는 문화를 분석하고 연구함으로써 간도의 문화가 우리 문화라는 것을 밝히고, 문화주권에 의한 문화영토론을 도입해서 문화의 주인이 영토의 주인이라는 것을 명시하고자 한다. 문화는 그곳에 집단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혼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문화의 진정한 주인이 영토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간도 수복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 정부 역시 간도 영토 수복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을 일깨워주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간도 문제의 원천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고조선 시대부터 현재까지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지금 우리가 간도라고 부르는 원래의 고조선 영토보다는 조금 작은 범위와 한반도에 국한한다.

1.2.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간도에 산재한 우리의 유형·무형문화의 분포와 그 기원을 예시하고 그것을 왜곡한 중국 학설의 모순을 지적한다. 그러나 간도에 산재해 있는 우리문화가 너무 광범위해서 모두 논할 수 없는 관계로 본 연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것만을 예로 들어 논하기로 한다.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문헌을 조사하고 선배연구자들의 논문, 인터넷과 각종 매체에 인용된 자료들을 연구 분석했다. 특히 19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북한 연구서들 중에서 고조선 문화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정립된 것을 인용했다.²⁾

1.2.3. 선행 연구의 검토

선행연구의 검토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³⁾를 검색한 결과 '간도의 우리 문화와 중국의 왜곡에 대

1) 연합뉴스, 2004년 10월 22일 보도

2) 우리 학계나 학자들이 게으르거나 간도를 등한시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직접 간도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일찍 마련되지 못해서 북한에 비해 간도에 관한 우리 학계의 연구가 뒤진 것은 사실이다.

한 대응 방안'에 관한 논문은 검색되지 않았다. 그러나 '간도 영토문제'를 검색한 결과 총 208건(단행본 111편, 국내 학술지논문 64편, 학위논문 30편, 기타 자료 2건, 공개강의 1건)이 검색되었으며, '간도 문화'로 검색한 결과는 총 1,011건(단행본 771편, 국내 학술지논문 127편, 학위논문 97편, 기타자료 16건)이 검색되었다. 또한 '간도 역사'를 검색하자 1,024건(단행본 738편, 국내 학술지논문 150편, 학위논문 120편, 기타자료 16건)이 검색되었다. 아울러 '간도'를 검색어로 입력한 경우에는 총 3,776건(단행본 2,347편, 국내 학술지논문 838편, 학위논문 504편, 기타 자료 82건, 학술지 2편, 공개강의 2건)이 검색되어 간도에 관한 학계의 높은 관심을 실증할 수 있었으나 간도의 문화를 영토로 연계하는 논문은 찾지 못했다.

2. 간도의 문화에 대한 일반적 고찰

2.1. 문화의 개념과 문화주권

문화는 인류가 살아오는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와 행위를 뜻한다. 인간 내적으로는 각종 사상이나 학문은 물론 정서를 포함한, 인류에게 내재된 모든 것이 포함된다. 외적으로는 인류가 벌이는 각종 행사나 전쟁 등의 생존경쟁은 물론 종교, 언어, 의복, 장례의식 등 인류가 표현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모두 문화이다. 어떤 집단이 표현하는 행위나 내재하고 있는 정서가 그 집단을 이루는 구

성원들의 보편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그들의 문화이다.

인간의 내·외적인 요소가 축적된 것이 문화라면 그 과정을 기록하거나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역사다. 다시 말해 역사 과정의 순간순간을 채우는 요소가 바로 문화다. 역사가 수직적인 시간적 개념이라면 문화는 수평적인 공간적 개념이다.

문화는 일반적으로 유형문화와 무형문화로 구분하고,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향유하는 문화를 전체문화, 같은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하여 역사적 발전과정을 반영한 것을 민족문화라 한다. 그런 논리로 볼 때 국호(國號) 역시 한 집단의 문화다. 자신들의 공감대 형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엄연한 문화다. 아울러 어떤 집단의 문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문화권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내재된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내재된 정서에 의해 모든 것을 표현하고 조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민족이 향유하는 고유한 문화나 문화재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국가의 3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 중에서 주권의 한 분야에 해당하는 문화주권⁴⁾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그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주권도 중요하지만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문화주권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문화주권을 갖는다는 것은 그 영토 안에서 그 문화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며, 그것은 문화가 생성되고 축적된 긴 세월 동안 그 영토를 점유했다는 증거이기 때문

3) www.riss.kr. 2014년 10월 7일 검색

4) 장계황 (2013), 간도의 영토화 모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일대학교, p.40에 연구자의 의견 첨부

이다. 특히 문화주권은 역사나 법에 의해 판단하기 힘든 영토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더더욱 중요한 것이다.

2.2. 간도의 문화권 분류와 간도문화의 정의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화권을 분류할 때 중국은 엄연한 황하문화권이고 우리나라 문화권은 기원전 10세기에 라오닝[遼寧] 지방과 한반도에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독특한 청동기 문화가 나타났는데, 특히 비파형동검으로 대표되는 청동기문화를 기반으로 했던 고조선(古朝鮮)이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하였던 북방문화권⁵⁾이다. 간도 일대의 요하문명은 중원의 황하문명과는 이질적인 문명이며 이 지역에서 보이는 빗살무늬토기와 피라미드식 적석총, 비파형동검, 치(석성에서 돌출하여 쌓은 곳)를 갖춘 석성(石城) 등은 중원지역에서는 보이지 않고 ‘요서-요동-한반도-일본’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북방문화계통이다. 이것은 요하문명의 주인공이 황하문명의 주인공과는 다른 사람들로 우리 민족의 선조라는 것을 보여준다.⁶⁾ 근래에 들어 중국이 요하문화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황하문화와 요하문화는 문화권이 엄연히 다른 것이다. 간도는 우리와 문화권이 같은 북방문화권에 속하며 그 문화주권은 우리 것이다.

또한 3장의 실태분석을 통해서 살펴볼 유형문화는 물론 간도에 전해오는 민요나 고대가요 등 민족

문화를 분석해 보면 우리 민족의 전체문화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악기 혹은 전통놀이기구 등을 보아도 우리와 정서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는 문화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므로 간도와 우리는 같은 문화권에 속한다. 아울러 국호 역시 문화의 산물임을 감안한다면 Korea와 China라는 국호에서도 간도가 우리문화권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정리되어 그 문화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도문화란 ‘간도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의 총체 및 생활과정과 그 과정에서 이룩한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통틀어 이르는 것으로 북방문화권에 속하는 우리들이 문화주권을 갖는 우리문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3. 간도의 우리문화에 대한 실태 분석과 왜곡에 대한 문제

3.1. 간도의 우리문화에 대한 실태 분석

3.1.1. 유형문화

간도에 분포된 우리 문화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조선과 고구려 문화유물이다. 그중에서 근원이 되는 고조선 문화유물을 살펴보면, 가장 널리 분포되고 많이 출토되는 것은 흔히 고인돌이라고 불리는 무덤과 청동기 문화의 대표 유물인 청동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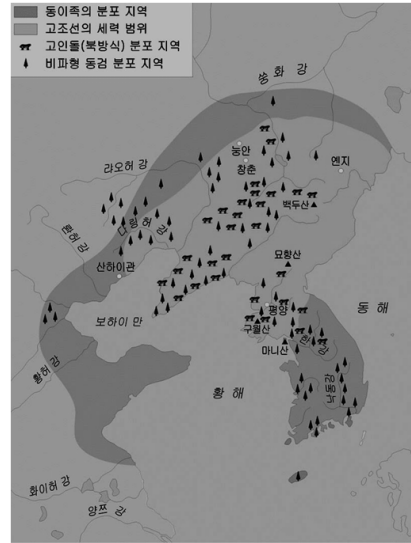
고조선의 고인돌과 청동검은 [그림 1]에서 보이

5) 두산백과, 2014. 11. 14. www.naver.com에서 '한민족' 검색 후 요약

6) 우실하 (2008), 중화문명탐원공정 대응책, 인터넷한국일보, 2014.10.3. 검색

는 분포를 나타낸다. 고조선 고분은 상식석관묘나 상식목관묘로 대표되는데, 한 가지 부연할 것은 [그림 1]에는 대마도에 분포된 고조선 양식의 고분⁷⁾과 청동검⁸⁾은 표시되지 않았지만 대마도에서도 다량 출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림 1]을 뒷받침하는 북한 학자들의 연구가 <표 1>⁹⁾로 정리되어 있다. 전체를 모두 정리한 것은 아니지만 간도에 분포한 우리 문화를 충분히 가늠하여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 고조선 유물 분포도

<표 1> 고조선 유물들의 현재 주소와 발견유물 목록

번호	유적 소재지	유적의 형태	주요유물
1	평안북도 의주군 미송리	동굴유적	청동도끼, 돌 끌, 돌화살촉 등
2	평안남도 개천군 청룡리	무덤	비파형 단검, 청동 칼, 돌도끼 등
3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포동		비파형 단검 등
4	평양시 부근		비파형 단검
5	황해남도 산천부근		청동검 자루
6	황해남도 연안군 부흥리	이탄층	비파형 단검
7	황해남도 배천군 대아리	돌상자 무덤	비파형 단검, 청동 활촉, 돌 활촉 등
8	요령성 여대시 감정자구 후목성역 강상	돌무지 무덤	비파형 단검, 비파형 창, 청동 활촉, 청동 팔찌, 청동 비녀, 청동 장식, 돌 활촉 등 874점
9	요령성 여대시 감정자구 후목성역 누상	돌무지 무덤	비파형 단검, 청동 방패, 청동 활촉, 청동 도끼, 청동 방울, 옥돌 구슬, 질그릇 등 288점

7) 신용우 등 (2013), 문화적 접근에 의한 대마도의 영토 근거 연구, 부동산학회지, 사단법인 대한부동산 학회, 통권 제36호, p.110. 대마도의 많은 고분들이 상식석관묘나 상식목관묘 등의 고조선 고분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무려 24곳이나 있지만 대마도에서 70Km 떨어진 이끼도(一岐島)에서는 일본 정통 고분인 옹관묘가 출토된다.

8) 대마도에서 청동검이 다량 출토되어 일본 규슈국립박물관에 정리되어 있고 그것은 BC4~2세기 경의 유물들로 반도에서 건너온 양식으로 대마도 출토품이라는 것을 박물관 측이 주석으로 설명해 놓은 것을 본 연구자가 2012년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했다.

9)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89), 조선 고대사, 한마당, pp.17-19. 북한학자들의 연구로 인해서 남한의 유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간도를 연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된다.

번호	유적 소재지	유적의 형태	주요유물
10	요녕성 여대시 감정자구 후목성역 쌍타자	돌무지 무덤	비파형 단검, 돌고리, 단지 등
11	요녕성 여대시 여순구구 윤가촌 남하	움무덤	비파형 단검, 청동 도끼, 청동 활촉 등
12	요녕성 여대시 여순구구 광가둔(노철산 기슭)	비위돌 밑	비파형 단검, 단지
13	요녕성 여대시 여순구구 유가당	돌곽 무덤	비파형 단검, 청동 도끼, 청동 활촉, 구슬 등
14	요녕성 여대시 여순구구 유가당		비파형 단검
15	요녕성 여대시 여순구구 유가당		비파형 단검
16	요녕성 금현 양갑산 소서구	돌무지 무덤	비파형 단검, 청동 도끼
17	요녕성 금현 양갑산 와룡천	돌무지 무덤	비파형 단검, 청동 도끼, 칠그릇 등
18	요녕성 해성현 대둔	움 무덤	비파형 단검, 청동 검자루
19	요녕성 심양시 철서구 정가와자 제 1지점	움 무덤	비파형 단검, 청동검 자루, 청동 송곳 등
20	요녕성 심양시 철서구 정가와자 제 2지점	나무곽 무덤	비파형 단검
21	요녕성 심양시 철서구 정가와자 제 3지점	움 무덤	비파형 단검, 검집, 청동 활촉, 청동 송곳, 청동 말 자갈, 말장식용 청동구슬 등 797점
22	요녕성 심양시 심하구 남탑		비파형 단검
23	요녕성 법고현 석주자촌		청동검 자루
24	요녕성 무순시 대화방 복산기슭	돌상자 무덤	청동도끼, 돌도끼, 단지조각 등
25	요녕성 조양현 십이대영자	돌곽 무덤 1호	비파형 단검, 청동거울 등 110여점
26	요녕성 조양현 십이대영자	돌곽 무덤 2호	청동 칼, 청동도끼, 청동거울 등 70여점
27	요녕성 조양현 십이대영자	돌곽 무덤 3호	청동거울, 검자루 맞추개
28	요녕성 금서현 오금당	돌곽 무덤	비파형 단검, 청동투구, 청동 칼 등

중요한 것은 유물들이 발굴된 곳이 한반도와 간도 지방에 고루 분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같은 문화권을 형성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문화 중에서, 기후와 종교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차별화되는 것이 장례문화인데 그 문화가 같다. 또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대표적인 무기인 청동검은 아주 중요한 유물인데 그 분포를 같이 한다. 그리고 그 문화권은 난하를 경계로 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 학자들이 중국의 고대 역

사서와 지리서인 『전국책』, 『염철론』, 『산해경』, 『위략』, 『사기』 등을 종합하여 발표한, 고조선과 연, 진, 한나라의 경계는 난하라는 견해와도 일치한다.¹⁰⁾ 아울러 중국의 역사서 『산해경광주』에 명시한대로 고조선이 중국의 한족과 다른 조선인이 세운 나라라는 것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요(堯)임금 때인 무진년(B.C. 2333)에 신인(神人)이 태백산 단목(檀木) 아래로 내려오니, 조선인(朝鮮人)이 그를 모시고 단군(檀君)이라 칭했다.

10) 북한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89), 조선고대사, 한마당, pp.103-110. 그러나 그들은 경계는 난하라고 하면서 대릉하부터 난하까지를 완충지대로 보았다.

(중략) 한(漢) 시기의 낙랑군이 그곳이다.”

단군을 모신 조선인이라면 우리가 흔히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나라다. 요임금 때 조선인이 그를 단군이라고 모셨으니 중국과는 다른 조선민족의 나라가 고조선이다. 고조선과 중국은 엄연히 다른 민족의 나라다. 그리고 그곳이 한 시기의 낙랑군이라고 했다. 부여가 고조선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라고 부여에서 이어진 고구려가 낙랑군을 물리치고 그 영토를 차지했으니 결국은 낙랑군이 차지했던 그곳이 고조선 이래 고구려와 대진국이 차지했던 영토다. 그렇다면 낙랑군이 차지했던 곳은 어디일까?

낙랑군이 차지했던 영토, 즉 고조선과 중국의 경계를 밝혀 주는 유적 중 하나가 점제현 신사비다. 점제현 신사비는 낙랑군 25현 중의 하나인 점제현에 있던 신사에 세워졌던 비석이다. 북한이 국보 16호로 지정한 비석으로 그 내용은 ‘점제현에 있는 신사를 유지보수하니 신께서는 점제현을 잘 보살피 달라’는 기도문이다. 그런데 이 비석이 중요한 이유는 점제현이 있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점제현이 낙랑군 25현 중의 하나였으므로 『산해경광주』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바로 그 자리가 고조선의 영역 중 하나였다.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고조선과 중국의 영역이 정해지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북한 학자들은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해서 난하 바로 동쪽에 있는 갈석산이 점제현 안에 있었던 것임을 확인했다.

그 연구에 의하면 일본 사학자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우리 역사 강역을 좁히기 위해서 점제현 신

사비를 평양 근처인 온천으로 이동한 것이지, 본래의 위치는 갈석산이라는 것이다. 그 증거의 예로 비석을 만든 화강암은 갈석산의 화강암과 같은 것으로 흑운모를 시료로 해서 핵분열연속법으로 측정한 결과 생성연대가 평양 근처의 그것보다 2,500만 년~2,800만 년을 앞선다는 것과 조성성분에서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점을 들고 있다.¹¹⁾ 또한 점제현 신사비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는 온천은 2,000년 전에는 바다물이 드나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신사비를 세울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점제현 신사비는 난하 바로 옆에 있는 갈석산에 있었던 것으로, 비석이 있던 곳에서 억지로 잘라낸 흔적까지 발견했다고 한다.¹²⁾ 난하까지 고조선의 영토라는 증거이며 훗날 한사군 중 하나인 낙랑군을 물리치고 고구려가 수복한 영토라는 것이다. 따라서 『산해경광주』에 의한 고조선과 중국의 경계 역시 난하라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간도가 난하 동쪽이니 간도에 산재한 문화는 중국과는 전혀 다른 문화이며 우리 고유의 문화가 분포된 것이다. 아울러 간도의 역사와 문화는 고조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고조선의 맥을 이은 고구려와 대진국의 영토로 존속했다. 그 증거는 고구려나 대진국의 고분 안에서 우리 문화유물이 출토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들과 같은 것들이 한반도에서 발굴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길림성(吉林省) 집안현(集安縣)에 있는 통구마선구고분군(通溝麻線溝古墳群)의 천추묘(千秋墓)와 서대묘(西大墓)로 고구려 시대에 축조되고 대진국

11) 북한 사회과학원 (2001), 평양일대 락랑무덤에 대한 연구, 도서출판 중심, pp.228~231.
12) 손보기(1990), (사)한배달 강연회, www. pluskorea. net 기사인용, 2014. 10. 14. 검색

시대에 그 유물을 관리한 것으로 유명한 고분이다. 그 두 고분의 유물은 평안남도 대동군 임원면과 시족면에 걸쳐 있는 고구려 시대의 석성인 대성산성에서도 그대로 출토된다. 특히 숫기와 막새의 문양 중에 집안의 장군총이나 천추묘, 태왕릉에서 나온 기와 막새의 문양과 같은 점¹³⁾은 대동강 변과 집안시, 즉 간도가 같은 문화권이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고대문화는 아니라고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근세의 벼농사와 세금에 관한 문화다. 이미 논한 대로 간도는 고조선 이래 우리문화가 창궐했던 우리 영토였으나 청나라의 봉금정책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들어가서 살 수 없던 지역일 뿐이다. 그러나 봉금정책이 해제되면서 가장 먼저 그곳을 개간해서 벼농사를 지은 것도 조선인으로¹⁴⁾ 조선조정에 세금을 냈다. 봉금정책이 해제된 후에 고조선에서 고구려를 이어 대진국의 맥을 잇던 조선인의 농경문화가 가장 먼저 꽃핀 것이다.

고대부터 근대까지 펼쳐진 간도문화는 우리에게 문화주권이 있는 우리문화다.

3.1.2. 무형문화

간도에 있는 무형문화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아리랑>이다. 2011년 중국이 자국 내 소수 민족의 문화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아리랑을 자국 무형문화로 등록했지만 아리랑이 간도와 남북한 모두에게 널리 불리는 우리 민족의 민요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아리랑>이 생성된 시기는 고구려 초이다. 몽골의 시조모 ‘알랑 고아’가 고주몽

의 딸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접목하면 아리랑의 기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고주몽이 아들 유리 등을 데리고 남하할 때 ‘알랑 고아’는 원래 그들이 터전으로 삼던 곳에 남아서 몽골 시조모가 된다. 이때 ‘알랑 고아’가 남하하는 고주몽과 유리 등의 일행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라는 설이 유력하다. (혹자는 ‘알랑 고아’의 측근이 ‘알랑 고아’의 서글픈 마음을 대변해서 불러 준 노래라고도 한다.) 언뜻 듣기에는 전혀 근거 없는 설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알랑 고아’의 ‘알랑’에 ‘1’모음을 첨가 하면서 음미해보면 <표 2>¹⁵⁾에서 보듯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다.

<표 2> 아리랑 가사내용 분석

원래 뜻	‘1’모음 첨가
알랑 알랑 알랑이요	아리랑 아리랑 아리리요
알랑을 두고 간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아리랑의 생성연대가 고구려이니만큼, 아리랑의 맥을 고조선의 <공무도하가>와 고려의 <가시리> 사이에 놓고 보면 우리 민족의 정서와 일치하는 민요라는 점이 더 확실해 진다. 서론에 기술했듯이 정서가 일치한다는 것은 같은 문화권으로 정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공무도하가>는 고조선의 노래로 ‘4언시’ 형식의 한문으로 번역되어 중국에까지 전해져 진나라 때의 책인 『고금주』를 비롯한 중국의 여러 기록에

13) 네이버 백과, www. naver. com, 2014년 4월 18일 “천추묘” 검색

14) 육락현 (2013),간도는 왜 우리 땅인가?, 백산자료원, pp.58-60.

15) 신용우 등 (2014), 중국 영토공정에 관한 대응방안 연구, 지적, 대한지적공사, 통권 제368호, p.49.

「공후인」이라는 곡명과 가사 및 창작되고 전해지게 된 경위에 대해 적혀 있다.¹⁶⁾ 그 가사와 창작된 경위는 다소 이견이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다.

“그대! 강물을 건너지 맙시사고
그토록 애태워 당부했건만
그대 마침내 빠져 죽었고나
아! 이일을 어찌할까!”

뱃사공 꺾리자고가 어느 날 새벽 배를 저어 나루를 건널 때 백발을 풀어 헤친 노인이 미친듯 병을 들고 강물에 뛰어들어 건너기 시작했다. 그 노인의 아내가 쫓아와서 말렸으나 듣지 않고 강물을 건너다가 결국 빠져 죽고 말았다. 남편을 잃은 노파는 비감에 사로잡혀 공후를 부둥켜안고 슬픔을 노래하다가 결국은 자기도 강물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다. 이 비참한 광경을 본 꺾리자고가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 여옥에게 말했다니 여옥도 공후를 당겨놓고 그 노래의 곡조를 뜯으면서 가사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 이것이 널리 유행하게 된 것이다.¹⁷⁾

〈가시리〉는 작자와 연대미상이지만 『악학판고』에 고려시대 작품임을 명기하고 있기에 의심할 여지없는 고려시대의 작품이다.¹⁸⁾

“가시리 가시리 잇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 잇고 나는
위 증즐가 太平盛代

날리는 엷디 살라호고
버리고 가시리 잇고 나는
위 증즐가 太平盛代

잡스와 두어리 마는논
선흐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太平盛代

설은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太平盛代”

‘정말 가시렵니까? 나는 어찌 살라고 가시려하십니까? 붙잡고 싶지만 마음이 상하면 안 올 것 같아, 서럽지만 보내드리니 가시는 듯 다시 오세요.’¹⁹⁾

〈공무도하가〉→〈아리랑〉→〈가시리〉로 이어지는 이 정서는 시대가 지나면서 이별의 한이 점점 승화되는 연결의 맥이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다가 빠져 죽으니 나도 함께 죽은 〈공무도하가〉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이 날 위험이 있으니 제발 가지 말라는 〈아리랑〉, 굳이 가시겠다면 보내는 드리지만 가시는 듯이 다시 오

16) 구사회 (2009), 〈공무도하가〉의 가요적 성격과 디아스포라, 한민족문화연구, 한민족문화학회, 제31집, p.22. 구사회는 ‘〈공무도하가〉가 한국문학사에서 구체적 형태를 띠고 나타난 최초의 노래로서 우리말로 불리다가 중국의 악부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한역이 된 한중 시가 교섭의 시발점이 된 노래’로 보고 있다.

17)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88), 조선 문화사, 오월, pp.81~82.

18) 최용수 (1993), 고려가요연구, 계명문화사, p.154.

19) 최용수, 전개서, pp.163-167. 참조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라는 〈가시리〉는 이별의 한을 점점 승화시켜 결국에는 근대시인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그 정점을 이루는 것이다. 가시는 님 걸음걸음에 내 분신인 진달래꽃을 뿌려드려 가시는 님을 감복시키는 이별의 한을, 한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다. 이는 같은 정서의 맥이고 같은 문화 안에서 성숙했음을 보여주고 있다.²⁰⁾ 시의 이미지는 바로 심상이며 심상은 '감각, 기억 등이 마음속에 재생한 것'으로 '눈을 감고도 보이는 어머니의 상' 같은 것이다. '사상, 또는 상상작용이 만들어 내는 보이지 않는 이미지'이기 때문이다.²¹⁾ 정서의 흐름이 같은 맥을 이어갈 때 슬픔의 승화 방식 역시 비슷하게 표현되고 같은 방향으로 발달할 수 있는 것이다.

간도에 전하는 민족 정서는 비단 민요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 외에도 간도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율놀이와 검무, 통소 등 모든 것이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과 같다. 간도는 엄연히 우리 문화주권이 미치는 우리 문화권이다.

3.2. 중국의 영토공정²²⁾에 의한 간도문화의 왜곡과 문제점

3.2.1. 영토공정의 개념 및 종류

영토공정은 소위 중국 통일 헌법에 “중화인민공

화국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각 민족의 평등·단결·상호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어떠한 민족에 대한 차별과 압박도 금지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²³⁾고 명시한 것을 근거로 하여, 자국이 불법으로 점유한 곳을 포함한, 자국 통치 안에 있는 모든 민족과 영토를 자국화하려 한다. 겉으로는 소수민족의 차별을 금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통치하고 있는 영토 안에 있는 소수민족들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와 역사마저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 영토를 영원히 지배하겠다는 속셈이다.

우리는 흔히 영토공정의 종류를 동북공정, 단대공정, 탐원공정의 세 가지로 말하지만 실제로는 근대공정을 포함한 네 개의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다.²⁴⁾

3.2.2. 영토공정의 내용과 문제점

영토공정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동북공정(東北工程)을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다. 동북공정은 고구려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들이 내세우는 통일헌법의 이념에 의해,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 모

20) 전규태 (1974), 고려속요의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pp32-43. 그러나 전규태는 이 논문에서 '아리랑'과 '공무도하기'는 고려속요가 아니므로 다루지 않았다.

조태성 (2012), 감성 매카니즘으로서의 '애이불비(哀而不悲)',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제55집, pp404-415. 조태성은 이 논문에 아리랑은 다루지 않았지만 애이불비의 형상화 방식을 통해 '공무도하기'를 만들어진 슬픔으로 '가시리'를 애의 남긴 자리로, '진달래꽃'을 슬픔의 지향으로 보았다.

21) 전규태, 상계논문, pp.20-23.

22) 신용우 등, 전계논문, p.39.

23)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 4조 1항.

24) 신용우 등, 전계논문. pp.44-46

두가 중국의 인민이므로 그들이 사는 곳 역시 중국 영토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합당화시키기 위해, 간도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의 역사인 고구려사가 자신들의 역사라고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그 당시에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고구려 유물이었으므로 고구려 역사만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면 간단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결국 고구려 역사가 자신들의 역사라고 왜곡하고 있지만 동북공정이 끝난 것은 아니다. 중국은 고구려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동북공정이 성급했던 것을 알기에 고조선 역사마저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동북공정은 현재 진행 중이다.

중국은 간도지역에서 고구려 이전의 시대, 즉 고조선(B.C. 2333)의 유물이 발굴되기 시작하자 자신들의 역사 연표를 늘려 고조선 역사마저 자신들의 역사라고 왜곡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자신들 스스로 선사시대라고 일컫던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삼대의 역사를 조작해 하상주단대공정(夏商周斷代工程)을 만들어 냈다. 하나라의 건국연대를 B.C. 2070년경이라고 발표함으로써 중국 역사가 B.C. 841년 진나라에서 시작되었다고 했던 종래의 주장을 뒤집고 간도지역에서 발굴된 유물과 역사에 역으로 맞춘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은 단대공정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그 이전의 유물들 특히 요하를 중심으로 한 간도지역 유물들과 중국의 역사연

도를 맞추기 위해, 중국 스스로 전설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삼황오제 시대까지 역사시대로 편입하기 위한 공정이다. 그러나 요하유역의 유물들은 난하 동쪽인 간도와 한반도를 거쳐 대마도까지 이어지는 북방문화권에 해당하는 문화권의 유물들로 중국이 자랑하는 중원의 유물들과는 상이하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벌인 공정이다.

마지막으로 주지할 것은 고대문화는 물론 지금 중국이 통치하고 있는 곳에 존재하는 근대에 일어난 모든 문화까지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벌이고 있는 근대공정(近代工程)²⁵⁾이다. 예를 들면 윤동주 시인을 공공연하게 ‘중국조선족 애국시인 윤동주’라고 칭하며, 이미 아리랑을 중국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또 율놀이와 검무, 통소 등 간도에서 행해지는 우리문화 유산들을 국가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전초전인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²⁶⁾

이것은 중국이 역사상의 문화에 관한 논리만으로는 간도의 문화가 자신들의 문화라는 이론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시도한 것이다. 중국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영토 안에서 벌어진 모든 역사를 자신들의 것으로 한다는 동북공정을 비롯해서 각종 영토공정을 폄하하지만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안다. 따라서 지금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영토 안에 존재하는 모든 문화는 그 시대와 향유하는 민족을 막론하고 자신들의 문화라며 생떼를 쓰는 것이다. 즉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영토 안에 있는 문화가 자신들의 문화이고, 그 문화

25) 신용우 등, 전개논문, p.40.

26) MBN News8, 주진희기자 보도, 2014.1.13.

를 누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국민이니, 그 문화가 존재하는 곳은 자신들의 영토라는 억지 논리를 펴는 것이다. 순리적인 논리로 따지자면, 아리랑을 노래하는 민족의 분포가 간도에서 한반도에 이르는 민족이며, 그 문화는 간도에서 한반도에 이르는 문화이고, 아리랑이 고구려 초기에 형성된 문화이니, 간도는 옛 고구려 후손들의 영토로서 한반도와 같은 주인들의 것이라는 논리를 억지로 뒤집자는 것이다. 그 좋은 예가 윤동주이다. 윤동주가 한글로 시를 읊었던 대한제국 국민이었지만, 그가 잠시나마 자신들의 영토라고 우기는 간도에 살았던 사람이므로 자국의 애국시인이며 그가 읊은 시는 자국문화라는 억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간도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한글 역시 자신들의 글이라고 우기는 억지를 펼 날도 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4. 간도의 문화 왜곡에 대한 대응 방안

4.1. 중국의 간도 문화 왜곡에 대한 대응 방안

간도의 경우에 그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영역을 확정해야 한다. 봉금정책으로 인해서 서로가 완충지대로 했던 근세사에 매달리기 보다는 그 이전에 누가 그 지역을 지배했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봉금정책은 청나라가 명나라를 토벌하기 위해서 후방인 조선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방편 중 하나였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봉금정책이 해제된 이후 처음으로 벼농사를 지어 농경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제도를 시행했던 것도 우리나라지만

중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실상을 파헤쳐 사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의 시점을 연구하여 뿌리를 찾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지역을 점유하고 있던 이들이 어떤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느냐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서로 자신이 그 영토의 주인이라고 우길 때는 그곳의 문화주권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그곳에 자리하고 있는 문화의 주인이 그곳을 점유했던 것이니, 문화주권자가 바로 영토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런 모든 사정을 간과하지 못하고 간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 동북공정을 시작했다. 자신들의 영토가 아닌 곳을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기에 급급해서 역사만 왜곡하면 되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역사만 가지고는 간도의 영토문제에 대응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역사를 왜곡해서 자신들의 영역에 집어넣는다고 실존하는 문화가 자신들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자 새로운 영토공정을 만들어 가면서 간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문화마저 왜곡하고 있다. 간도의 문화를 자신들의 역사와 영역 안에 넣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우리는 중국이 억지주장을 할 수 없는 진리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것은 간도에 만연해 있는 우리 고대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그 문화의 진정한 주인이 우리라는 것을 밝혀내는 일이다. 간도의 고대문화는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 문화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난하를 중심으로 한 서쪽 문화는 소위 중국이 황화문명이라고 주장

해 온 황화와 양쯔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중화문화로, 난하 동쪽 요하유역에서 발굴되는 요하문명을 포함해서 한반도를 거쳐 대마도로 이어지는 북방 문화와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은 이미 밝혔다. 이런 유적을 중심으로 문화의 경계를 짓는 일은 문화에 의해 간도 지역이 누구의 영토인가를 구분 짓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중국이 자신들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발생한 우리의 문화를 자신들의 문화로 편입시키는 왜곡을 저지르게 방지할 것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과 자유로운 학술교류를 통하여 동조할 수 있다면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토와 문화를 다루는 학술단체나 기관, 혹은 영토나 국토정보 문제를 다루는 공사 등에 위임하여 외부 전문가와 함께 팀을 만들어 추진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 세계에 알리고 인정받음으로써 간도의 문화주권을 확립한 후, 문화주권자가 영토의 주인이라는 문화영토론에 의한 우리 영토임을 증명하고 간도 수복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4.1.1. 국호에 관한 명확한 근거의 정리

현재 두 나라가 사용하는 국호의 어원과 발생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급조되고 날조된

나라가 아니라면, 나라의 국호를 정하는 것은 역사와 문화에 의거한다.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중국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영문 국호다.

우리나라의 영문 국호는 Korea고 중국은 China다.

먼저 중국의 국호 유래를 보면 진나라의 진(Gin)에서 지나(Gina)→차이나(China)가 되었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학설이다. 진나라는 지금의 난하를 경계로 고조선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던 나라다.²⁷⁾ 진나라가 서방과 수교를 하면서 당시 서방을 지배하고 있던 언어인 라틴어가 나라이름도 성(性)을 지닌다는 원칙에 의해 여성명사인 지나(Gina)가 되었고 이것이 영문식 표기로 고쳐지면서 차이나(China)로 고착화된 것이다.

우리나라 영문 국호인 코리아(Korea)는 고구려에서 유래된 것이다. 일부 식민사관을 가진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국호가 고려시대에 서방에 알려지면서 생긴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식민사관의 잔재일 뿐이다.

연개소문은 당태종이 침공해 오자 지금의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사마르칸트 지역에 있던 강국(康國)에 사신을 보내어 동맹을 모색했다. 그 때 파견된 고구려 사신의 모습이 사마르칸트시 교외에서 발굴된 아프리카시얌 궁전 벽화에서 발견되었다.²⁸⁾([그림 2]29)) 그때 공식적인 국호를 고려라고 했다. 그것을 증명하는 기록은 『수당가

27)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89), 조선 고대사, 한마당, p.104.

28) 한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10. 4. www. naver. com에서 검색

29) 고구려 사신 2명(그림 오른쪽 하단 부분)이 중국·유럽·아랍 등의 사절단과 함께 7세기 중엽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를 통치한 바르흐란 왕(재위 650~670년)을 알현하는 모습을 담은 아프리카시얌 궁전 벽화 모사도(세계일보, 2009.11.17).

화』, 『신당서』 등의 중국 역사책이 있다. 이 역사책에는 고구려와의 전투 장면에서 고려라는 국호를 사용하여 기록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5세기 중엽 이후로는 ‘높고 빼어나다’는 한자의 뜻을 살려 고구려를 줄인 말인 ‘고려(高麗)’를 공식 국호로 삼았다.³⁰⁾고 학계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국호는 고구려를 일컫는 고려가 라틴어식 표기에 의해 여성명사인 코레아(Corea)가 되었고 이것이 영어식 표현으로 바뀌면서 코리아(Korea)가 된 것이다.³¹⁾ 국호만 보아도 고구려가 누구의 역사인지 알 수 있다.



[그림 2] 사마르칸트 공전벽화

고조선과 진나라는 난하를 경계로 각각의 영토를 형성했다. 고조선의 후예가 고구려이니 결국 두 나라의 국호는 고조선과 진나라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국호만 보아도 확실하지만 고구려와 고조선 역사가 우리 역사가 되면 간도의 문화는 우리 것이 되고 영토마저 우리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기에 중국은 간도의 문화를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로 다른 국호를 만들게 했던 근원이 되는 국경이 난하다. 난하를 중심으로 동쪽은 중화문명권이 고 서쪽은 북방문화권이다. 결국 난하 동쪽은 북방문화권의 주인인 우리민족 조선의 영토요, 서쪽은 스스로 중화문화라고 자랑하는 문화의 주인인 중국 영토라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수 없다. 역사는 물론 문화주권을 소유한 민족이 영토의 주인이라는 문화영토론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간도는 처음부터 우리 영토다. 중국이 간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왜곡을 일삼을지라도, 간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은 역사와 문화는 물론 두 나라의 국호가 증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간도가 우리 영토요 간도문화가 우리문화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국호가 고구려 때 이미 고려(Corea)로 서역에 전래되었다는 것을 고착화시키고 그에 따른 후속 증거들을 다량 확보하여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고려라는 국호가 남북국 시대³²⁾ 이후의 고려가 아니라 고구려 시대에 정착된 국호라는 것을 알리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벌이는 영토공정이 고구려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편입시켜 간도의 문화와 영토를 자기들 것으로 만들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우리나라 국호가 되는 근원을 자신들의 역사라고 주장할 수 없으니 모든 영토공정들이 의미를 잃게 된다. 또한 이런 사실들을 우리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홍보자료 등을

3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10. 4. www. naver. com에서 검색

31) 우리나라국호가 Corea에서 Korea로 바뀐 것은 예를 들지 않아도 많은 고지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32) 우리 역사에서 ‘통일신라’라는 말이 먼저 사라지고 신라와 대진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남북국시대’라는 용어를 고착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 간도는 우리 문화가 살아있는 우리 영토라는 것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4.1.2. 중국 영토공정의 진의에 대한 심층적 분석

중국이 단지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 변방의 역사로 만드는 데 영토공정의 목적이 있는지를 세심하게 따지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영토공정을 펴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이민족이라고 싫어하며 중국 역사의 일부인가 아닌가 하는 논란을 펼쳤던 청나라의 역사마저 자신들의 역사로 확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³³⁾ 중국이 주장하는 영토공정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할 때 고구려 역사가 중국의 역사가 아닌 것은 물론 청나라 역사 역시 중국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 청나라의 전신인 금나라의 시조 누르하치가 『송막기문』, 『만주원류고』, 『금사』 등의 중국 역사책에 의해 신라의 후손으로 밝혀진 것은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³⁴⁾ 금나라의 발상지 역시 고구려의 발상지와 비슷한 곳이고 고구려 역사가 중국 역사가 아닌 것이 밝혀지면 청나라 역시 중국 역사가 아니라 중국을 지배했던 이민족의 역사가 되는 것이다. 그 이민족은 우리와 뿌리를 같이 하는 민족이다. 청나라가 우리와 맥을 같이 하는 민족이고 중국 역사의 한 부분이 아니라 중국을 지배한 민족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간도와 관련한 모든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중국은 자신들이 한족국가라고 주장하던

자부심마저 버리고 이민족을 자신들의 역사에 포함하는 오류를 스스로 범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영토공정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중국이 영토공정을 펴으로써 단순히 우리 문화만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송두리째 왜곡하는 것임을 만천하에 알리고 그 동의를 구해야 한다.

4.1.3. 중국이 벌이는 근대공정에 대한 확실한 대처

중국이 벌이는 근대 공정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이다. 중국이 윤동주 시인을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고 했을 때, 그가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는 근거를 들어 즉각 대처했어야 했다. 고대 유물은 그 기록이나 근거가 부족해서 즉각 대처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지만 윤동주 시인의 경우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가 아버지와 함께 간도 명동에서도 잠시나마 살았지만, 대한제국의 국적을 갖고 한글로 시를 쓰며 연희전문학교를 다녔다는 사실 등을 밝히고 그의 시집을 번역하여 원문과 함께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아리랑이나 율놀이, 통소와 검무 등을 자신들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국제 문제화시켜야 한다. 중국이 아리랑을 자국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킬 때에도 뒤늦게 대처한 것이 사실이지만, 율놀이와 통소, 검무를 헤이룽장성이 무형문화재로 등재시켰다는 것에 대해

33) 이인철 (2010),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백산자료원, pp.50~54.

34) 신용우 등, 전개논문, p.43.

서는 문화재청에서조차 알지도 못했다고 한다.³⁵⁾ 이런 식으로 대처하다가는 지금 고조선 문화를 왜곡하고 있는 중국에게 꿈쩍 못하고 당하고 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침묵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4.2. 간도의 우리 문화 영역의 정착 방안

4.2.1. 교육을 통한 국내에서의 간도에 관한 이해력 증진

본고에서 논술한 사실들은 누구보다 먼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각인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다. 간도의 문화와 영토에 관한 진실은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알리고 이미 학교교육을 마친 세대에게는 직장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4.2.2. 간도 현지 동포들의 문화와 민족적 자긍심 고취

간도 현지에서는 그곳에 전해져 오는 우리의 고대 문화는 물론 현재 그곳 동포들이 누리는 문화까지 육성하여, 간도에 살고 있는 우리민족 스스로 자랑스러운 고조선의 후예임을 자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만일 정부가 국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면, 기업이라도 적극적으로 간도 지역에 투자하게 해야 한다. 우리민족들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은 물론 그 지역에 사는 동포들에게 교육과 문화적으로 우리 정서와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특히 간도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일자리나 교육적 환경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이 기회에 우리 기업들이 간도에 기업을 세우고 동포들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해 주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 시기에 교육적인 투자를 위해서 육성하던 기업 야간학교 등을 설립해서 일자리와 교육, 특히 민족정서의 교육과 문화를 함양해 주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만일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혀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곳의 문화가 우리 문화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계승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와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간도에 있는 문화유산이 우리의 것이기에 우리가 문화주권을 확립하고, 문화영토론에 의해 우리 영토임을 확정하고, 간도에 사는 민족이 우리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 우리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없다면 영토 수복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악의 경우 중국이 주민투표에 의해 그 귀속 여부를 결정하자고 들이밀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투표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크림반도를 합병한 러시아의 경우를 잊으면 안 된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영토에 대한 정의를 문화에 의해서 마련하여 그 문화를 육성하고 그 영토 안에 우리문화가 살아 숨 쉬게 해야 한다.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의 정서가 통하는 문화를 공유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35) MBN News8, 전계보도

5. 결론

5.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간도의 영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까지의 방법과는 다르게 간도에 있는 우리 문화에 대해 분석하고 중국의 왜곡을 막음으로써 문화주권에 의해 간도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서술했다.

간도에 산재해 있는 문화 유물이 중국의 중화문화명은 엄연하게 다른 것으로 간도와 한반도 전역에 나타나는 북방문화권의 문화유산이라는 것에 대한 이론을 밝힌 후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화주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밝혔다. 또한 고조선의 <공무도하가>와 <아리랑>과 <가시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정서에 대해서 분석한 후 간도에 존재하는 검무, 통소 등의 무형유산 역시 우리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그 문화권을 나누는 고조선과 중국의 국경이 난하라는 것을 역사서와 유물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서 밝혔다.

그 다음으로는 간도에 있는 우리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기 위한 중국의 동북공정을 비롯한 영토공정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그 대응방안으로 국호 역시 문화유산의 하나이므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국제적인 국호에 대한 근원을 파헤쳐, 우리나라 국호인 Korea는 고조선의 후예인 고구려에서 시작된 것이고 중국의 국호인 China는 진나라에서 시작된 것으로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은 국호가 증거하고 있음을 밝혔다. 고조선과 진나라의 경계가 난하이고, 난하를 중심으로 중화문화와 북방문화가 구분되는 것이

니 요하구역의 문화를 포함한 간도의 문화는 당연히 우리가 문화주권을 갖는 우리문화이며 간도 역시 우리 영토라는 것도 명시했다. 또한 중국이 이민족이라고 치부하면서 침략자로 규정하다가 지금은 자신들의 역사라고 하는 청나라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역사의 한 조각이라는 근거를 밝히면서, 이런 사실들이 확실하게 밝혀지면 중국 영토공정이 무용지물이 되고 간도의 영토문제도 종식될 것임을 제시했다. 그리고 근대공정에 대해서는 고대문화명은 다르게 왜곡하는 것을 쉽게 감지할 수 있으므로 왜곡에 대해 즉각 항의하고, 전 세계에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아울러 간도에 있는 문화유산이 우리의 것임으로 문화 영토론에 의해 간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이 확실하더라도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며 그 방법을 제시했다.

영토문제는 지금 우리 당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후손에게 지워주는 짐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영토문제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문제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서 그 심각성은 덜 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전쟁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다. 영토가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또 영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토에 대한 개념이 올바르게 못하다면, 이해 당사국 간에 서로 자신의 영토라고 우기면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언제 일으킬지 모르는 불씨를 안고 있는 것이다. 특히 힘의 논리에 의해 서로 다른 문화권을 억지로 영토에 편입시켰다가는 반드시 독립을 갈

망하는 무력투쟁에 봉착하게 된다. 중국이 소위 자치구라는 명목하에 자국 영토로 편입시킨 곳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무력투쟁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영토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당대에서는 선조들에게 부끄러운 일로 끝날 수 있지만 후손들에게는 평화를 잃어버리는 요소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비록 지금 당장 우리가 잃어버린 영토들을 수복할 힘이 없을지라도 반드시 정확하게 정리는 해놓아야 한다. 문화주권 역시 그곳을 지배했었다는 확실한 증거로 명백한 주권 중 하나이므로 문화를 근거로 우리 영토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서 후손들이 확실하게 알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세대에 영토를 수복하지 못하더라도 국력이 강해지는 그날, 문화영토론을 근거로 우리 영토를 수복함으로써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영토문제의 씨앗을 없앨 수 있다. 그것이 곧 인류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5.2. 연구의 한계성과 정책적 제언

5.2.1. 연구의 한계성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우리나라 영토와 문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개념이 올바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 영토의 범위에 대한 정의가 정부는 물론이고 사학계와 영토를 다루는 학자들의 의견도 통일되지 못하고, 영토문제에 대해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그 귀중함을 알기에 나름대로의 주장을 펴고 있지만 아주 미약하다. 정부 역시 모르는 것은 아닐 텐데 국제관계의 마찰이라는 외교적 문제를 먼저 생각하느라고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

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1980년대 잠시 북한 학술서적 등을 출간할 수 있게 허용되었을 때 출간한 서적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5.2.2. 정책적 제언

4.1.2.의 대응방안에서 논한 바와 같이 간도 영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청나라 역사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

중국의 역사 중에서 요나라와 원나라, 청나라의 역사가 과연 중국의 역사인가에 대한 논란은 중국 학계 내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났던 문제다. 특히 중국 전역을 지배한 원나라와 청나라의 역사가 과연 중국 역사인가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원나라의 역사는 엄연히 몽골의 역사로서 중국을 지배했던 이민족의 역사이다. 중국 대륙을 지배했던 것 하나만으로 원나라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청나라의 역사 역시 중국을 지배했던 것이지 중국역사는 아니다. 중국이 원나라와 청나라의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만들지 않으면 자국의 역사가 단절되거나 아니면 지배를 당했던 역사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역지로 자국의 역사에 편입시켰을 뿐이다.

청나라는 금나라의 후손이고, 금나라의 시조는 신라의 후손이다. 그렇다면 금나라의 역사는 우리 역사의 한 줄기이고, 청나라 역시 당연히 우리 역사의 한 줄기여야 한다. 청나라의 역사가 우리 역사의 한 줄기라는 것을 증명하여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중국의 동북공정을 비롯한 영토공정은 의미를 잃고 간도문제 역시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사회 (2009), 〈공무도하가〉의 가요적 성격과 디아스포라, 한민족문화연구, 한민족문화학회, 제 31집, 2009.
- 북한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1988), 조선문화사, 오월.
- 북한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89), 조선고대사, 한 마당.
- 북한사회과학원 (2001), 「평양일대 락랑무덤에 대한 연구」, 도서출판 중심.
- 서영수 (1990), 「광개토대왕릉비연구 : 정복기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1990.
- 신용우 등 (2013), 「문화적 접근에 의한 대마도의 영토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사단법인 대한부동산 학회, 제36호.
- 신용우 등 (2014), “중국 영토공정에 관한 대응방안 연구”, 「지적」, 대한지적공사, 통권 제368호.
- 신형식 등(2004), 「고구려는 중국사인가」, 백산자료원.
- 우실하 (2007), 「동북공정 너머 요하문명론」, 소나무.
- 육락현 (2013), 「간도는 왜 우리 땅인가?」, 백산자료원.
- 이인철 (2010),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백산자료원.
- 장계황 (2013), 「간도의 영토화 모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일대학교.
- 전규태(1974), 「고려속요의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조병현 (2007), 「지적학의 접근방법에 의한 북방영토 문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일대학교대학원.
- 조병현 (2012), 「북방영토연구」, 백산자료원.
- 조태성(2012), 「감성 매카니즘으로서의 '애이불비(哀而不悲)」,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제55집.
- 최용수 (1993), 「고려가요연구」, 계명문화사.

【기타자료】

- 네이버 백과, www.naver.com,
- 브리태니커사전, www.britannica.co.kr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www.riss.kr
- 한국어 위키백과 사전, ko.wikipedia.org
- 인터넷 MBN, www.mbn.co.kr